

**Annotated Bibliography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84~1985**
저술소개, 1984~1985년

편집자주: 본호에 실린 저술 소개는 1984년 7월 ~1985년 6월 사이에 발간된 전국 각 대학교 및 대학, 대학교 부설 연구소, 기타 사회과학 학회 및 민간 연구소의 논문집 중에서 한국의 인구나 발전문제에 관계되는 논문만을 발췌 수록한 것임.

Editor's Note: This bibliography lists articles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 which appeared during July 1984 ~ June 1985 in various journals published by universities, colleg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1. Population Growth and Policy
人口成長과 人口政策

1541. 孔世權, 柳好信, “韓國人口의 노령화에 관한 고찰”(국문), 인구문제논집 제25호, 인구문제 연구소, 1984. 12, pp. 50~59.

Kong Sae-Kwon, Ryu Ho-Shin, “An Observation of Recent Demographical Changes in Aged Population” (in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5, The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Seoul, Korea, 1984. 12, pp. 50~59.

이 논문에서는 노령인구의 변동추이, 노령인구의 특성 및 그 문제점을 고찰하고 있으며 분석 자료는 1940년대 이후 인구 Census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용된 분석방법은 인구센서스 자체가 갖는 변수의 제약성을 감안하여 노령인구의 시계열적 변동추이와 분포를 인구분석 기법에 의거하여 개관하는데 한정하였다.

1542. 김두섭, “소득 분배와 출산력: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영문),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회보 제13권,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1985. 3, pp. 1~18.

Kir.: Doo-Sub “Effects of Income Distribution on Fertilit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English), *Bulletin* Vol. 13,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3, pp. 1~18.

This study examines a relationship between income distribution and fertilit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hypothesis of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fertility, the relative income theory, and the theory of birth control diffusion, the concept of income distribution is introduced into the analysis of fertility. The research is based on data from the 1974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KNFS), the 1975 Korean Census, and the 1970 U.S. Census.

1543. 金鍾旼, 李時伯, “出產抑制 事業의 出生防止 效果分析 1962~1982”(국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7 권 제 1 호, 한국인구학회, 1984. 12, pp. 40~77.

Kim Jong-Min and Lee Sea-Baick, “A Quantitative Analysis of Fertility Control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Births” (in Korean),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7 No. 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4. 12, pp. 40~77.

상기 논문은 정부가 주도한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 출산조절정책이 인구성장의 둔화, 즉 인구억제에 다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인구억제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우선 정부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1962년부터 1982년까지의 인구학적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하고, 둘째로 전 사업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출산력 수준의 변화를 고찰해서, 마지막으로 연도별, 피임방법별 보급실적률 분석하고, 이에 따른 출산방지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1544. 金貞任·James A. Palmore, “농촌지역내 개인적 대인 접촉망의 특성과 가족계획 수용”(영문 및 국문요약), 인구보전논집 제4권 제2호, 한국 인구 보전 연구원, 1984. 12, pp. 125~148.

Kim Jung-Im and James A. Palmore, “Personal Networks and the Adoption of Family Planning in Rural Korea”(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4 No. 2, 1984. 12, pp. 125~148.

기존의 인구 및 가족계획문헌에 의하면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등과의 일상적인 대인 접촉이, 그리고 특히 어른지도자와 준거집단의 가족계획 수용태도 및 행위에 대한 개인의 인식상태가 개인의 가족계획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사용하였던 사회적 환경이라는 개념을 재정의 하기 위해 대인접촉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것이 가족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1545. 權泰煥, “한국의 가족 구조와 출산력”(영문),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회보 제13권,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1985. 3, pp. 39~54.

Kwon Tai-Hwan, “Family System as a Determinant of Fertility in Traditional Korea”(in English), *Bulletin* Vol. 13,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3, pp. 39~54.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of Korea has an inherent propensity for high fertility and thus constitutes an important barrier to the recent fertility transition in Korea. To answer the question, this paper examines fertility implications of the major principles and components of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in various social, demographic and familial settings.

1546. 李琦錫, “産業都市의 人口成長과 雇傭構造

變換에 관한 연구”(국문), 지리학 제30권, 대한 지리학회, 1984. 12, pp. 14~27.

Lee Ki-Suk, “Urban Population Growth and the Change of Employment Structure in the Industrial City of Ulsan”(in Korean), *Geography* No. 30, Korean Geographical Society, Seoul, Korea, 1984. 12, pp. 14~27.

위의 논문은 산업도시의 인구 성장과 고용구조 변화의 관계에 상존하는 다음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 1970~1980년간의 울산시를 사례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첫번째 문제는 급성장한 산업도시에서 공무원부의 고용구조가 인구 성장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비공식부문의 고용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그 관계를 밝혀보는 것이다. 둘째로는 인구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공식부문의 산업별 고용이 어떤 구조적 특색을 나타내고 있는가 즉, 산업별로 어떤 부문의 고용 변화가 인구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산업도시의 발달 과정에서 고용의 창출이 직접적으로 도시 인구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기존 성장론은 부분적 한계가 있으나 타당성이 인정됨을 울산시 연구로서 입증해 주고 있다.

1547. 李相泰, “夫婦의 人工授精과 法的 問題”(국문), 아세아 여성연구 제23집, 숙명여자 대학교 아세아 여성문제 연구소, 1984. 12, pp. 289~312.

Lee Sang-Tae, “Legal Problems of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and Wife”(in Korean), *Journal of Asian Women* Vol. 23, Research Center for Asian Women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2, pp. 289~312.

필자는 편의상 인공수정을 체내 인공수정과 체외 인공수정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있어 그 모습, 법적허용과 한계, 민사상·형사상의 문제들의 국외 판례와 입법의 예를 참고하여 개관하고, 우리의 현행법들이 인공수정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의 입법방향을 모색해 보고 있다.

1548. 李永範, “經濟成長과 人口問題에 關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經濟論集 제5집, 대구대학교 경상과학 연구소, 1985. 3 pp. 81~104.

Lee Young-Bum “A Study on the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Problem”(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Vol. 5, The Institute

of Economics and Business, Taegu University, Taegu, Korea, 1985. 3, pp. 81~104.

이 논문에서는 II장에서 인구성장의 능동적 측면인 적극론과 수동적 측면인 소극론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인구성장의 이중성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인구성장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J.M. Keynes, R. Nurkse, H. Belshaw, H. Leibenstein, J. Robinson & J. Eatwell, P.A. Samuelson의 인구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한다음 IV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성을 지닌 인구성장의 적정 인구성장률이 Malthus의 악마 p와 악마 u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Harrod 류와 신고전파 모델, J. Robinson의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1549. 林鍾權·宋泰致, “한국의 인공임신 중절실태”(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론집 제 4권 제 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 12, pp. 28~44.

Lim Jong-Kwon and Song Tae-Min “A Review on Induced Abortions in Korea: 1964~1983”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4 No. 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1984. 12, pp. 28~44.

본 연구는 출산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쳐왔던 인공임신중절이 높은 피임수용상태에서도 계속 출산억제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인공임신중절의 감소에 따른 출산력 변동관계 그리고 최근 인공임신중절을 크게 둔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보는데에 주목적을 두고있다.

1550. 鄭相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의 人口標本調査方法”(영문), 인구문제연구 제 1집, 동아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 1984. 12, pp. 115~166.

Jeong Sang-Hee “Development of Demographic Sample Surveys in Asia” (in English), *Studies in Population Problems* Vol. 1, Population Research Center, Dong-A University, Pusan, Korea, 1984. 12, pp. 115~166.

최근 수년간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인구표본조사를 행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새로운 방법과 절차를 시도하여 다소 큰 진전을 보아왔지만, 아직도 상기한 국가들의 조사목적과 각국의 실정에 맞는 유일한 조사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과거 인구조사 경험을 통해서 야기된 여러가지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기술하는 한편, 각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및 기타 여건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551. 趙南勳·孔世權·林鍾權, “최근의 출산력과 피임양상”(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론집 제 4권 제 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 12, pp. 3~27.

Cho Nam-Hoon, Kong Sae-Kwon and Lim Jong-Kwon “Recent Changes in Contraceptive Use and Fertility in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4 No. 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1984. 12, pp. 3~27.

본고는 지금까지의 인구역계정책의 성과가 정부 목표표로 하는 수준에 부합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연도별로 계획된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또 앞으로의 목표출산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1552. 崔鴻鎰, 朴辰榮, “後進國에 있어서 인구역계정책과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 要因들간의 函數關係: 多國交叉的 比較分析”(영문), 인구문제연구 제 1집, 동아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 1984. 12, pp. 45~94.

Choi Ho-Yle, Park Jae-Young, “Political Capacity, Development and Family Planning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 A Cross-National Analysis” (in English), *Studies in Population Problems* Vol. 1, Population Research Center, Dong-A University, Pusan, Korea, 1984. 12, pp. 45~94.

본 논문의 목적은 1960~1975기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이 인구역계정책의 성공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경험적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다. 1970년대 이 부분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는 가족계획 수행과 사회적 또는 경제적 변수간에 관한 것으로서 가족계획의 성공도에 대한 정치적 변수의 영향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정치능력(Political Capacity)”이라는 개념을 기존의 분석물에 추가하여 후진국 인구역계정책의 성공 요인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변수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다른 독립 변수들과 정치적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553. 韓仁淑, “여성의 노동과 출산력: 負(一)의 관계가 존재하는가?”(영문),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회보 제13권,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

계 연구소, 1985. 3, pp. 19~38.

Han In-Sook, "Women's Work and Fertility: Is There a Negative Relationship?" (in English), *Bulletin* Vol. 13,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3, pp. 19~38.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work and fertility in a developing country. Using data from the 1974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fertility differentials between workers and nonworkers are examined by means of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techniques.

The results of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es indicate that the fertility differentials between workers and nonworkers were not substantial: workers, in fact, displayed somewhat higher actual and expected fertility behavior. When attention is paid to two factors, however, strong and significant differentials emerge. Women who worked at jobs in the modern sector displayed lower fertility than nonworkers, while those who worked in the traditional sector were intermediate. In contrast, women who worked in farm sector had much higher fertility than nonworkers even after statistical adjustment for marital duration and education.

2. Migration and Urbanization 人口移動과 都市化

1554. 朴英哲, "韓國의 都市 人口集中"(국문), 경영경제 제18집, 계명대학교 산업경영 연구소, 1985. 1, pp. 205~220.

Park Young-Chul,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Large Cities in Korea" (in Korean), *Business Management Review* Vol. 18, Institute of Industrial Management Research of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1985. 1, pp. 205~220.

이 글은 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유발된 극심한 수도권 인구 집중과 경제적 집중으로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현황과 대책을 몇가지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적정 도시 규모의 결정과정을 설명하고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도시화 추세를 그룹별로 그리고 개별 도시별로 나타내고 그 특성을 살펴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를 60년에서 80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있어서의 도시개발 및 도시인구 분산 대책을 검토하고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1555. 李昌宰, "光州市 土地利用에 관한 연구"(국문), 지역개발연구 제16집 제 1권, 전남대학교 지역 개발연구소, 1984. 12, pp. 197~225.

Lee Chang-Jae, "A Study on the Land Use Situations in Kwangju City" (in Korean), *Journal of Regional Development* Vol. 16, No. 1,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1984. 12, pp. 197~225.

본 분석은 統計的·定量的 分析方法을 이용해서 광주시의 토지이용실태의 변천 과정과 현황을 토지 이용 형태의 구성원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 틀 속에 묶어 파악하면서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즉 기존 토지이용이 도심부를 중심으로 한 단핵구조(mono-core structure)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한 기능적 분화가 미진해 효율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1) 개발촉 설정에 따른 신시가지 개발, (2) 단핵 구조에서 다핵구조로의 변화, (3) 市街化 調整區域의 설정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1556. 李文鏡, "同族村의 人口移動과 村落의 변모"(국문), 지리학 제30호, 대한지리학회, 1984. 12, pp. 77~89.

Lee Moon-Jong, "Outmigration from the Same-Blood Village and Village Transfiguration" (in Korean), *Geography* No. 30, Korean Geographical Society, Seoul, Korea, 1984. 12, pp. 77~89.

이 논문은 동족부락을 통해서 인구 이동의 형태나 과정, 그리고 인구이동이 촌락의 변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답사와 면접의 결과를 통해 대상 마을인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신흥리 동족촌의 특성을 개관하고 동족적 결합이 이촌의 진행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추적조사를 통해 살펴 보았고, 다음에 인구 이동의 결과가 촌락의 변모에 미친 영향을 인구구성의 변화, 토지이용과 토지소유 형태의 변화, 주거의 황폐화 등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 있다.

1557. 鄭薊泳, "首都圈에 있어서 社會의 人口增減

의 空間的 패턴과 그 形成過程”(국문), 지리학 제30호, 대한 지리학회, 1984. 12, pp. 62~76.

Jeong Soo-Young, “The Spatial Pattern and Its Process of Social Population Increase in Seoul Metropolitan Area-Analysis by the Spatial Autocorrelation” (in Korean), *Geography* No. 30, Korean Geographical Society, Seoul, Korea, 1984. 12, pp. 62~76.

이 연구는 수도권에 있어서 사회적 인구 증감을 지표로 해서 1960년부터 1980년 까지를 인구센서스연도에 따라 4기로 나누어 지도패턴을 노정하는 공간적 패턴에 관하여 시계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인구증감의 공간적 패턴은 사회·경제적 변천과 함께 그것의 인과관계로부터 생긴 인구이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그러한 공간적 패턴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인접지역간에 공간적 자기상관 즉 상호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공간적 패턴과 공간적 과정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1558. 趙鏗, “서울 도심 빈곤층의 생활실태에 관한 일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論叢* 제44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4. 8, pp. 37~64.

Cho Hyoung, “Life of the Urban Poor in a Downtown Slum Area of Seoul”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Korean Cultural Research Institute* Vol. 44,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4. 8, pp. 37~64.

19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성장정책은 도·농간의 불균형을 확대시켰고 이러한 불균형은 도시 특히 서울의 비대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동시에 도시 내부에 빈곤층이 집거하는 지역이 생겨나 큰 사회문제화 되었다.

본 연구는 남대문로 5가에 위치하고 있는 구양동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가하기 보다 그 지역 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거이동의 거취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문지 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해 그들의 생업이 무엇이며, 그들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1559. 尹鍾周, “近世韓國의 民族離散에 관한 社會人口學的 小考”(국문), *인구문제론집* 제25호, *인구문제 연구소*, 1984. 12, pp. 31~49.

Yoon Jong-Joo, “Socio-Demographic Observation on Racial Dispersions of Korean

People in Modern Ages” (in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5, The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Seoul, Korea, 1984. 12, pp. 31~49.

본 논문에서는 조선조말부터 해방이후 남북분단과 동족상잔의 시련기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민족의 민족이산역사를 개괄하고 있다. 만주, 연해주 및 하와이 등 지역에 대한 민족 이주의 연구는 이에 관련된 문헌조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일본 및 북한지역에 대한 연구는 이외에도 일제시대 및 정부수립 후에 실시된 국제 조사자료들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또한 6.25 동란시의 민족이산에 관해서는 KBS-TV의 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에 접수된 재회신청자의 접수기록을 전산처리한 통계자료들이 이용되었다.

1560. 崔仁鉉, “人口移動의 형태 연구를 위한 전국표본조사”(영문 및 국문요약), *인구문제론집* 제25호, *인구문제 연구소*, 1984. 12, pp. 81~101.

Choe Ehn-Hyun, “Some Aspects of Migration Behavior in Korea” (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5, The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Seoul, Korea, 1984. 12, pp. 81~101.

이 논문은 다음 3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센서스자료와 기타 자료에 근거해 인구이동과 도시화에 관한 거시적 분석을 행한다. 둘째, 인구이동에 관해 미시적 분석을 행한다. 셋째, 인구이동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에 연구 결과들을 적절히 사용한다.

1561. 洪東植, “相對的 都市誘引이 農村壯年들의 離農意思에 미치는 影響”(국문), *농촌경제* 제8집 제2권, *농촌경제 연구원*, 1985. 6, pp. 57~68.

Hong Dong-Shik, “The Influence of Relative Urban Attractiveness on Rural-Urban Migration Intentions among Rural Youth” (in Korean), *The Korea Rural Economics Review* Vol. 8, No. 2, Korea Rural Economics Institute, Seoul, Korea, 1985. 6, pp. 57~68.

위의 논문은 이농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인지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의와 달리 부락생활 만족도와 도시에서의 성공기회 인지의 두 요인을 동시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여 도시에서 예상되는 직업적·교육적·문화적 성공기회의 정도와 현거주부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相對的 都市誘引 개념을 통해 이것이 이농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1) 다른 관련 변인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에도 농촌 청장년들의 상대적 도시유인은 이농의사에 유의적인 영향을 준다. (2) 이농 의사에 대한 상대적 도시 유인의 영향은 도시근교 농촌 부락에서 보다는 일반 농촌 부락에서 더 높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이를 입증하여 해결책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상대적 도시 유인의 저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562. 黃昌潤, “서울大都市圈 人口集中 反轉現象에 대한 小考”(국문), 국토연구 제 3권, 국토개발연구원, 1984. 12, pp. 144~160.

Hwang Chang-Yoon, “A Study on Polarization Reversal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in Korean),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Vol. 3,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Seoul, Korea, 1984. 12, pp. 144~160.

필자는 도시의 발전과 성장과정에서 그 중심부 집중화 현상이 어느 순간엔가 그 주변 외곽 지역으로 분산되는 전환점인 집중반전(polarization reversal)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의 인구집중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상기 논문은 우선, 이론적 고찰로서 집중반전 현상의 유발요인과 대도시 분산 정책에 대한 집중 반전 현상의 의의를 개진하고, 그런 연후에 집중반전현상 추정치에 이용되는 분석요소 및 그 문제점과 인구부문의 대도시 집중 반전 현상을 측정하는 자료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상의 틀을 기초로 서울 대도시권에서는 주변도시로의 인구유출로 1970~75년 경에 집중반전 현상이 일어났으나, 정책적·제도적 의지의 부족으로 제대로 인구집중의 분산과 역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Family

家族

1563. 金正玉, “農村主婦의 結婚適應度에 關한 研究”(국문), 여성문제 연구 제 13집,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제 연구소, 1984. 12, pp. 357~366.

Kim Jung-Ok, “A Study of Marital Adjustment in Rural Wives” (in Korean), *Journal of the Women's Problems Research Institute* Vol. 13, Hyosung Women's University, Daegu, Korea, 1984. 12, pp. 357~366.

이 연구는 농촌주부의 결혼적응도는 어느정도이며 교육수준, 가계수입, 생활주기, 자녀수, 결혼경과 햇수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내고 주부의 적응도와 관련된 배경원인을 알아내어 부부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564. 박성연·최혜경, “노인의 生活滿足度 向上을 위한 기초연구—가족 부양 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 모형의 검증”(국문), 대한가정학회지 제 23권 1호, 대한가정학회, 1985. 3, pp. 71~86.

Park Seong-Yun and Choi Hye-Kyung, “Family Support System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Exploring a Casual Model” (in Korea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23, No. 1,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Seoul, Korea, 1985. 3, pp. 71~86.

상기 논문은 가족 부양 체계를 통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가족 부양 체계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노인 부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과 사회의 상호 보완적인 노력은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지를 규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노인의 주어진 조건, 경제 및 서어비스적 부양 체계, 정서적 부양 체계, 그리고 노인의 생활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모형을 구성해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1565. 宋良順, “家族計劃에 對한 意思決定”(국문), 논문집 제 6권 제 2호, 마산대학, 1984. 12, pp. 441~458.

Song Yang-Soon, “Decision Making about Family Planning” (in Korean), *The Research Bulletin*, Vol. 6, No. 2, Masan National University, Masan, Korea, 1984. 12, pp. 441~458.

이 논문은 가족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가족계획 과정, 가족목표설정과정, 의사결정과정등을 가정관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중산층, 고학력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1566. 朴鎮淑, “大學生의 家族意識에 關한 研究”(국문), 대한가정학회지 제 22권 3호, 대한가정학회, 1984. 9, pp. 129~148.

Park Chin-Sook, “A Study on Family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 (in Korea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22, No. 3,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Seoul, Korea, 1984. 9, pp. 129~148.

이 연구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은 한국사회의 사회적으로 가족에 대한 인지나 의식, 그리고 가족 그 자체가 변모해 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가족의식을 남녀별, 지역별(대도시와 중소도시)로 분류하여 그 변모 양태를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특히, 가족의식의 3 영역 즉, 家意識, 婚姻意識, 부모에 대한 扶養意識간의 상호관련성의 차원에서 논의를 진전시켜 가족의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567. 玉亮鍊, “韓國과 美國大學生의 老人意識”(국문), 사회과학논총 제 3권 제 2호,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4. 12, pp. 149~168.

Ock Yang-Lyun, “Patterns of Thought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by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the U.S.A” (in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3 No. 2, College of Social Scien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1984. 12, pp. 149~168.

이 논문은 한국 대학생의 노인 의식과 미국 대학생의 노인 의식을 비교 파악함으로써 한국 대학생의 노인 의식의 서구화의 정도를 밝혀내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1) 노인의 규정과 기준을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개념 규정상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노인의 부양과 동거의식을 비교·파악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국가적 보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있다. (3) 노인에 대한 효도와 존경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경로사상을 비교하고 있다. (4)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에 대한 의식을 비교해 사회적·국가적인 노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인지를 밝혀보고 있다.

1568. 李東瑗, “都市主婦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국문 및 영문요약), 論叢 제44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 연구원, 1984. 8, pp. 7~36.

Lee Dong-Won “The House Wife Familiar Network of the Urban A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Korean Cultural Research Institute* Vol. 44,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4. 8, pp. 7~36.

본 논문은 1960년대 초부터 급격히 전개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한국의 가족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

여,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았으리라 추측되는 도시의 가족을 대상으로 양가친척과의 관계를 분석, 사회적 관계망의 한 단면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부분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1569. 李相揆, “慶北地域의 親族名稱”(국문), 여성문제 연구 제13집,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제 연구소, 1984. 12, pp. 191~206.

Lee Sang-Gyu, “The Kinship-Terminology of Kyong-pook Region” (in Korean), *Journal of the Women's Problems Research Institute* Vol. 13, Hyosung Women's University, Daegu, Korea, 1984. 12, pp. 191~206.

친족 명칭의 분화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 또는 인류학적 요인들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친족명칭을 통해 해당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북 지역에서 친족명칭의 어형과 의미가 자기 어떻게 분화되어 실현되는가 또 친족명칭의 어형과 의미차이가 어떤 方言 差를 보여 주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친족명칭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나라는 부계장자의 가족중심적 사회이고 또 대인 관계에 대한 호칭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점을 보건대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가족 중심의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1570. 李貞珩, 安童善, “都市夫婦의 커뮤니케이션·相互作用에 관한 연구(2)”(국문), 아세아여성연구 제23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 연구소, 1984. 12, pp. 149~172.

Lee Jung-Woo and Ahn Dong-Seon,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eraction among the Urban Couples” (in Korean), *Journal of Asian Women* Vol. 23, Research Center for Asian Women of Su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2, pp. 149~172.

이 연구는 부부의 커뮤니케이션·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중의 두번째 연구로서 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부부의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일치도·빈도 및 상호작용 정도는 어떠한지를 밝혀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을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도하여 부부 관계가 수평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양상, 일치도, 빈도 및 상호작용 정도를 종속변수로하고 결혼지속변수, 주부의 학력,

생활 수준 등의 가정환경 변인을 독립 변수로 선정해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1571. 全英洙, 金善姬, “韓國家族의 生活週期變化에 關한 研究(Ⅰ)—도시가족의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가정대학연구보고 제 10집,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1984. 12, pp. 87~100.

Jun Yeong-Soo, Kim Sun-Hee, “The Study of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in Urban Family of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College of Home Economics* Vol. 10,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1984. 12, pp. 87~100.

이 연구는 가족주기에 따른 결혼 만족도의 변화곡선에서 다양한 양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학동기, 중등교육기, 고등교육기, 진수기의 비단계를 선택하여 우리나라 도시가족의 남편과 부인의 결혼 만족도 및 변화 양상과 일반적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 각각의 결혼만족도를 가족주기 단계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1572. 鄭容璇, “都市家計의 自家所有過程에 對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가정대학연구보고 제 10집,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1984. 12, pp. 113~132.

Chung Yong-Sun, “A Survey on the Process of Having His Own House”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College of Home Economics* Vol. 10,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1984. 12, pp. 113~132.

이 연구는 결혼후 처음 주택을 구매한 시기 및 정착단계에 도달한 시기와 자금마련 방법들을 조사 분석해 봄으로써 임대 주택으로부터 새 가정을 형성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생활 계획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조사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328 명의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1573. 崔焯, 薛光石, 沈貞宅, “家族背景이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국문), 인주문제연구 제 1집, 동아대학교 인주문제연구소, 1984. 12, pp. 5~44.

Choi Soon, Sul Gwang-Seok, Sim Jeong-Taik, “A Study on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on Formulation Selected Personality Traits of Children” (in Korean),

Studies in Population Problems Vol. 1, Population Research Center, Dong-A University, Pusan, Korea, 1984. 12, pp. 5~44.

본 연구의 주관심사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자녀 가족이 보편화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현재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족의 소자녀화 현상이 인구의 자질면에 미칠효과를 탐색해 보는 일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수 및 성구성이 자녀의 성격형성, 그리고 나아가서 성장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진단하고 있다.

1574. 韓南濟, “家族研究의 成果와 問題點”(국문) 한국사회학 제 18집, 한국사회학회, 1984. 10, pp. 46~70.

Han Nam-Je, “Status of Family Research in Korea” (in Korean),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18,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4. 10, pp. 46~70.

이 논문은 1960년부터 지금까지 사회학자들이 발표한 가족에 대한 연구업적을 개괄하고 있다. 먼저 이 논문은 가족 사회학의 연구 업적을 현대 한국가족의 연구, 전통 한국가족의 연구, 비교 가족 연구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주제를 세분하여 그 주제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런 다음 주제선정, 연구방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575. 韓南濟, “産業化와 家族制度의 變化—19세기와 20세기의 미국가족 비교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과학 제 3집,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4. 12, pp. 61~76.

Han Nam-Je, “Industrialization and the Change of Family System”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3, College of Social Sciences, Kyongbuk University, Daegu, Korea, 1984. 12, pp. 61~76.

이 논문은 미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족 형태, 가족의 크기, 가족의 크기, 세대구성, 자녀수, 기타 가족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19세기와 20세기의 미국 가족 제도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파악하고 있다. 그 결론으로서 이 논문은 산업화가 가족제도의 변화에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를 부인하고 양자 사이에는 어느정도의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1576. 韓貞信, “女性的 成就動機와 行動의 舍蓄”(국문), 아세아여성연구 제23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 연구소, 1984. 12, pp. 173~202.

Han Jeong-Shin, “The Achievement Motives and Behavioral Implication in Female”(in Korean), *Journal of Asian Women* Vol. 23, Research Center for Asian Women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2, pp. 173~202.

상기 논문은 기존의 성취동기 연구가 남성 위주로 실시 되었음을 지적하고, 여성의 성취 노력 및 성취 동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탐색·종합하여 여성 성취동기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구조적 요인을 논의하고 아울러 과업의 성취 결과와의 관련을 밝히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1) 성취 동기 그 자체의 남녀차이는 없다. (2) 남성의 전통적 고정관념 및 태도가 여성의 직업적 성공·과업 수행을 방해하는 커다란 요소가 되고 있다. (3) 여성의 성취 결과에 대한 귀인행동은 성공에 대해서는 과업의 容易, 運으로 돌리고, 실패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부족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다.

4. Occupation and Labor Force

職業과 勞動力

1577. 姜台爽, “勞使關係 過程論에 대한 고찰”(국문), 사회과학연구 제3집, 목포대학 사회과학연구소, 1985. 1, pp. 111~128.

Kang Tae-Seok, “A Study on the Industrial Processes Theory”(in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Vol. 3, The Social Science Institute,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Korea, 1985. 1, pp. 111~128.

이 논문은 노사관계의 전체 이론 중에서의 노사관계 과정과 부분이론으로서의 노사관계 과정 이론 중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과정이 어떻게 위치가 부여될 것인가, 또 노사관계 과정 자체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를 고찰하고 있다. 그래서 논의는 노사관계 과정의 의의를 먼저 규정해 준 연후에 노사관계 시스템론과 과정이론, 규칙 제정과 노사관계 과정, 그리고 부분 이론으로서 과정이론을 차례로 검토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다.

1578. 具滋慶, “協同의 勞使關係의 確立方案”(국문 및 영문요약), 연구논문집 제29집, 효성여자대학교, 1984. 8, pp. 535~554.

Koo Ja-Kyung “The Scheme for the Improvement of Labor and Capital Relations System”(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Research Bulletin* Vol. 29, Hyosung Women's University, Daegu, Korea, 1984. 8, pp. 535~554.

이 논문은 노사관계 System의 발전과 노사협 의제, 노사관계 System의 두가지 기본유형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난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전개과정, 특징,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분쟁의 동향을 개괄하여 합리적 노사관계 관리방안은 제시하고 있다.

1579. 김경동, 이은숙, “국제 노동력 이동의 사회 심리학적 함의 : 중동 취업 노동자와 그 가족의 경우”(영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6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10, pp. 31~54.

Kim Kyong-Dong, Lee On-Jook, “Social-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he Case of Korean Workers in the Middle East and Their Families”(in English),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6 No. 2,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0, pp. 31~54.

The main question of the present study is: What are the most urgent concerns and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left beh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sought from simple descriptive analysis of materials available in the following form: petitions to the Ministry of Labor counseling section for overseas workers and their families; case materials compiled at the counseling centers set up by a few select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for their overseas workers and their families; letters and diaries of, and interview reports with the spouses of the migrant workers, published in some special journals put out by the firms or the Overseas Construction Association; and some survey findings collected by a large construction firm.

1580. 魯珍榮, “韓國 勞動運動에 관한 연구—8.15 해방 이후”(국문), 사회과학연구 제3집, 목포대학 사회과학연구소, 1985. 1, pp. 49~70.

No Jin-Young, “A Study on the Trade Union Movement of Korea”(in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 Vol. 3, The Social Science Institute,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Korea, 1985. 1, pp. 49~70.

이 글은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1945~50년 간의 좌우대립 격돌기, 1950~53년간의 노동운동부재기, 1954~60년 4.19간의 노총의 파쟁과 민주적 노동운동의 제기시기, 1960. 4. 19~1961. 5. 16까지의 민주화 시기, 1961~70년간의 산별조직 및 경제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시기, 1971년 이후의 국가개입 강화시기로 단계 구분하여 살펴본 연후에 노동운동의 성격을 노동자의 역사적 성격, 사용자주의 인식부족, 연대의식 부족과 산업체의 영세성, 정치적 경향 그리고 노동제법에 의한 제약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 노동조건, 임금, 노사관계의 노동 운동의 제조조건을 검토해서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몇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581. 卞榕榮 · G. Rama Rao, “한국의 연령별 취학인구의 추계 : 1985~2000”(영문 및 국문요약), 인구보건진흥회 제 4권 제 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소, 1984. 12, pp. 149~163.

Byun Yong-Chan, G. Rama Rao, “Projection of School Enrolment Population for Korea: 1985~1990”(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4, No. 2, 1984. 12, pp. 149~163.

본 연구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자료를 토대로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 6~17세 연령군별 학생수를 5년 간격으로 추계한 것이다. 추계 방법은 1966년부터 1980년까지의 센서스자료에서 연령군별 취학율을 계산한 뒤 장래에도 동기에서의 취학율 증가경향이 계속유지된다는 가정과 2000년까지는 6~17세 연령군에 있어서 거의 완전취학이 실현된다는 가정하에 로지스틱 곡선(Logistic Curve)을 적용하여 장래의 연령군별 취학율을 추계하였으며 이를 既推計된 인구에 적용함으로써 장래의 학생수를 구하였다.

1582. 沈允宗, “勞動政策의 現況과 問題點”(국문), 사회과학 제22집,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8, pp. 309~337.

Sim Yun-Jong,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Labor Policy”(in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Vol. 22,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Sung Kyun Kwan University, Seoul, Korea, 1984. 8, pp. 309~337.

이 논문은 노동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

하기 위해 첫째, 노동법의 성립과 변천과정,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둘째, 임금, 노동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셋째,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의 같은 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 즉 노사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난후 필자는 노동인력의 보호 육성, 근로 생활의 안전보장이란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583. 宋璋燮, “勞動力의 質의 水準向上과 經濟成長”(국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7권 제 1호, 한국인구학회, 1984. 12, pp. 7~139.

Song Wi-Seob, “Qualitative Enhancement of Labor Force and Economic Growth”(in Korean),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7,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4. 12, pp. 7~39.

본 논문은 교육수준의 향상과 연령구조의 변화가 노동력의 질적 구조변화의 큰 요인중의 하나였다는 전제하에 교육수준, 노동경력이 노동력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노동력의 질적 수준 변화가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인력개발계획 및 경제 개발계획에 필요한 정책적 판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人的資本形成理論(Human Capital Theory)을 이론적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노동력의 질적 수준의 변화를 수량화해서 추정 한 거시적 생산 함수를 가지고 그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친 기여도를 분석하고, 2025년까지의 경향까지 추정해보고 있다.

1584. 李慶禧, “美國勞使關係의 發展「모델」에 關한 研究”(국문), 논문집 제 6권 제 2호, 마산대학, 1984. 12, pp. 285~310.

Lee Kyong-H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Model of Industrial Relations in America”(in Korean), *The Research Bulletin* Vol.6, Masan Nat'l University, Masan, Korea, 1984. 12, pp. 285~310.

이 논문은 미국노사관계의 발전적, 역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노사관계의 발전상의 특징, 미국노사관계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고충처리제도를 고찰하고, 또한 미국노사관계의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고 있다.

1585. 李秀子, “韓國零細製造業部門의 性別勞動分

業研究—平和市場 의류 봉제공장 사례를 중심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女性學論集* 제 1 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84. 12, pp. 143~172.

Lee Soo-Za “A Study of Sexual Division of Labor in the Sector of Korean Petty Manufacturing Industry: With emphasis on the case study of clothing workshops in the Pyongwha Market in Seoul”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Women's Studies Review* Vol. 1,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2, pp. 143~172.

이 논문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전자본주의 생산양식이 공존하고 있다는 제 3세계 사회구성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성별노동분업이 어떻게 영세 제조업 분야의 여성노동을 규정하는가를 분석하여 이를 이론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의 주변화된 노동자들중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성별 노동분업으로 인하여 더욱 주변화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영세 제조업부문의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위치와 노동시장내에서의 위치를 알아보고, 이들의 고용관계 및 고용 구조에 있어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분석의 초점이 있다

1586. 張英植, “최근 여성의 취업양상 변동에 관한 고찰”(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복지* 제 4 권 제 2 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 12, pp. 65~78.

Jang, Young-Sik “Recent Working Pattern of Females”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4 No. 2, 1984. 12, p. 65~78.

이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있었던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는 데에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 피고용인의 생명표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유형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내 준다. 생명표는 여성의 평균 취업여명을 보여줄뿐 아니라 교육 수준, 출산력, 초혼연령, 자녀의 가치, 도시화 등에 의해 야기된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유형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이상의 요인들은 여성의 평균 취업 여명을 연장시켜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1587. 鄭成基, “韓國의 大·中小企業 勞動市場 二重構造論의 實證的 再檢討”(국문), *勞福研究論*

叢 3 집, 경남대학교 노동복지 연구소, 1984. 12, pp. 203~236.

Chung Sung-Ki, “Empirical Reexamination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y between Big and Small Companies in Korea” (in Korean), *Labor Welfare Studies* Vol. 3, Labor Welfare Studies Center, Kyeong-Nam University, Masan, Korea, 1984. 12, pp. 203~236.

이 논문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과연 일본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바와같이 대·중소기업간에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노동시장에 있어서 대·중소기업의 자본축적조건 특수성, 대·중소기업 노동자계급의 상태, 노사관계의 현단계등을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필자는 (1) 고용 안정성, 임금수준의 차이가 거의 없고, (2) 대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세력이 충분히 강력하지도 못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1588. 曹永建, “美軍政期 賃金勞動의 史的 研究”(국문), *勞福研究論叢* 제 3 집, 경남대학교 노동복지연구소, 1984. 12, pp. 1~152.

Cho Young-Kun, “A Study on the Labor Economic History Under U.S. Military Administration in Korea” (in Korean), *Labor Welfare Studies* Vol. 3, Labor Welfare Studies Center, Kyeong-Nam University, Masan, Korea, 1984. 12, pp. 1~152.

이 연구는 관련 부분의 선행연구에 크게 힘입으면서 1945년 8월~1948년 8월, 즉 해방으로부터 정부수립 이전시기까지의 미 군정기의 임금노동부분의 동태를 축으로 한 사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근대 경제사의 의미와 하나로서의 역사상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당시 정부와 기업, 자본축적면의 경제적 역할에 비하여 임금노동측면, 즉 산업노동자 부문의 지배적 동태에 주목하면서 노동경제, 노동사정, 노동정책, 노동운동의 상관관계를 입체적으로 논구함으로써 미군정기 임금노동의 사적 역할과 이후 정부 수립으로부터 오늘날까지의 노동문제에 대한 역사적 유산과 맥락을 검증하고 있다.

1589. 최태용, “직업위신에 관한 연구—Trieman과 Hope의 가설을 중심으로”(국문), 한국사회학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1984. 9, pp. 143~163.

Choi Tae-Ryong, “A Study on Job Prestige” (in Korean), *Hanguk Sahoehag Yeongu* Vol.

7, The Sociological Socie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4. 9, pp. 143~163.

본 연구에서는 Trieman과 Hope의 직업 위신에 대한 가설을 1983년 한국사회의 자료로 검토하였다. 육체노동 직업의 위신 서열이 낮게 평가되고 정신 노동 직업과 부 및 권력과 결부되는 직업들의 그것은 높이 평가되어 한국사회에서 그 적용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한편 직업 위신을 결정하는데 있어 직업의 도덕적 가치를 객관적 보수 못지않게 중요시한 Hope의 가설은 한국사회에서는 충분히 지지되지 않는다. 직업이 가져다 주는 소득이 직업위신을 평가하는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Tieman의 권력과 특권결정이론과 함께 현대사회에 있어 직업 위신이 의미하는 바를 이론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지적한다.

1590. 한승수, “한국에서의 노동력이동과 送金”(영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6권 제 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10, pp. 1~30.

Han Seung-Soo, “Labour Migration and Remittances in Korea” (in English),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6 No. 2,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4. 10, pp. 1~30.

이 논문은 한국인의 해외 취업과 국내로의 송금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먼저 이 논문은 노동력이동의 역사를 고찰하고 그것이 가져온 경제적 영향을 살펴 본 다음, 정부의 노동력 이동에 대한 지원체제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노동력의 해외이동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을 열거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591. 黃益周, “韓國 建設業의 雇傭構造에 관한 研究”(국문), 인류학논집 제 8집,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1985. 7, pp. 144~219.

Hwang Ik-Joo, “Employment Structure of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n), *Anthropological Study* Vol. 8, The Anthropological Socie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7, pp. 144~219.

상기 논문을 첫째,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설업에서의 노동과정·노동시장 구조·소상품생산자의 존재 형태의 변화를 밝히기 위해 비공식부문을 중심으로하여 한국 건설업의 고용 구조를 밝히며, 둘째, 이에 기초해서 한국 건설업에서의 생산직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 및 그 발생요인을 노동과정의 측면에서 규명하며,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업에서의 생산물 시장 및 노동시장의 분화가 함축하고 있는 자본주

의적 발전 추세 속에서 소상품생산자의 존재형태 및 그 변화 추세를 고찰하고 있다.

5. Economic Development 經濟發展

1592. 金元培, “多國籍企業이 韓國經濟에 미친 영향”(국문), 논문집 제 8집, 牧園大學, 1985. 1, pp. 375~402.

Kim Won-Bae, “Effect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on Korean Economy” (in Korean), *Research Articles* Vol. 8, Mokwon Methodist College, Daejeon, Korea pp. 375~402.

이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개념과 본질을 규명하여 다국적 기업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후, 다국적기업의 활동범위를 연구하여 다국적기업의 이론을 기본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대한투자 실태와 이들이 한국의 무역구조에 미친 효과를 규명하여 앞으로의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593. 金正年,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에 관한 考察(1945~80)”(국문), 경제논집 제 24권 제 1호,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1985. 3, pp. 51~98.

Kim Chung-Nyun, “A Study of the Growth Process of Korean Economy” (in Korean), *The Korean Economic Journal* Vol. XXIV,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3, pp. 51~98.

해방 이후의 한국경제는 생산구조에서의 불건성과 파행성, 기업의 자본구조와 경영구조상의 취약성과 영세성, 적자재정의 누적 및 누적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체제와 생산체제의 불균형 아래에서 생산의욕의 위축과 만성적인 실업의 증가, 대외무역면에서의 불균형등으로 인해 자립경제 기반의 구축마저 거의 기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외국의 의존도는 더욱 가속화 되어 갔었다.

이 연구는 해방이후의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발전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고찰로서 첫째, 한국경제 재건기의 개황, 둘째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1594. 朴龍垞, “우리나라 製造業製品의 比較優位 比較分析”(국문), 논문집 제 19집, 제주대학, 1984. 12, pp. 163~189.

Park Yong-Kyung, “Comparative Advantage Analysis in Manufactured Goods” (in

Korean), *Cheju University Journal* Vol. 19,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1984. 12, pp. 163~189.

본 논문은 수출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제품의 비교우위 패턴의 변화를 파악하고 일본, 대만, 중공 등의 인접국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의 좌표를 인식하고 앞으로의 수출산업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효과적인 수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수출증대와 수출상품의 구조적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1595. 裒茂基, “한국의 機能的 所得分配과 分配率 推計”(국문), 경제논집 제23권 제4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12, pp. 389~418.

Bai Moo-Ki,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and the Estimation of Distribution Rate” (in Korean), *The Korean Economic Journal* Vol. XXIII,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2, pp. 389~418.

이 논문에서는 1963~82년 기간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분배국민소득을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등 부문별로 추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계자료를 기초로 노동분배율을 계산하고, 각 부문별 노동소득의 연평균성장률과 1인당 노동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을 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지금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을 일단 추계해 보는데 주력하였으며 이것을 이용한 연구나 추계 결과에 대한 분석은 행하지 않고 있다.

1596. 沈相鎭, “한국과 미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비교연구”(영문), 논문집 제26집, 전북대, 1984. 8, pp. 287~323.

Shim Sang-Sun, “A Comparative Study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United States”(in English), *Thesis Collection* Vol. 24, Jeonbug Nat'l University, Jeonju, Korea, 1984. 8, pp. 287~303.

이 연구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시된 1962년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과 미국의 경제발전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양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거시적으로 개관한 후 나아가서 A.M. Ocum의 GNP gap에 의한 경제 성장 내용과 Phillips Curve과 그 내용인 실업과 Inflation, 그리고 GNP per capita에 의한 소득격차내용을 비교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597. 楊秀吉, “輸入自由化와 經濟運用”(국문),

경제논집 제23권 제4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12, pp. 509~552.

Yang Soo-Gil, “Import Liberalization and the Operation of the Economy”(in Korean), *The Korean Economic Journal* Vol. XXIII,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2, pp. 509~552.

1983년을 기하여 정부는 수입규제의 완화와 관세개혁의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본격적인 수입자유화 계획을 설정하고 이에 착수하였다. 이 논문을 이러한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를 둘러싼 논쟁을 배경으로 하여 수입자유화의 역사적 배경과 당위성, 수입자유화에 대한 제약요인을 검토하고 있고 또 수입자유화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살펴 봄으로서 이들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598. 禹明東, “우리나라 公企業의 效率性分析”(국문), 논문집 제8집, 牧園大學, 1985. 11, pp. 265~280.

Uh Meong-Dong, “Analysis of the Efficiency of Public Firms in Korea” (in Korean), *Research Articles* Vol. 8, Mokwon Methodist College, Daejeon, Korea, 1985. 1, pp. 265~280.

이 논문은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의 Duality 성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공기업 특히 철도산업의 비용 및 생산기술에 관한 정보를 유도해 내서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효율성, 나아가서 공기업으로서의 적합성여부를 살펴 보고 있다.

1599. 李章鎬, “新興工業國企業의 國際直接投資에 관한 연구—한국 기업의 국제직접투자를 중심으로”(국문), 동아연구 제4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4. 9, pp. 1~34.

Lee Jang-Ho, “The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by Firms of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Korean Firms in Particular” (in Korean), *East Asian Studies* No. 4,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of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pp. 1~34.

필자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제조기업의 해외투자 진작과 다국적 기업화 경향에 주목하면서 특히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념적으로 이론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신흥공업 국가들이 선진국의 무역장벽, 기술공여거부, 선진국 다국적 기업과의 국제경쟁, 신흥공업국내의 과당경쟁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치자 국제직접투자에 뛰어들게 된 점을 지적하면서, 투자의 목적과 수단, 신흥공업국의 단

제적 국제화, 신흥공업국의 국제직접투자 등을 논하고 있다.

1600. 李在雄, “金融自律化的 基本性格과 成果”(국문), 경제논집 제23권 제4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12, pp. 475~508.

Lee Jae-Woong, “The Basic Character of Financial Deregulation and Its Performance”(in Korean), *The Korean Economic Journal* Vol. XXIII,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2, pp. 475~513.

최근에 들어 정부의 금융규제도 풀고 금융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개편도 추진되고 있다. 은행이 민영화되었고 금융기관의 자율 경영, 책임경영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와 제도 개편의 기본성격을 밝히고 금융자율화의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분석하는데 있다.

1601. 李在律, “貿易政策과 經濟發展에 관한 연구”(국문), 경영경제 제18집, 계명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85. 1, pp. 317~332.

Lee Jae-Yul, “A Study on Trade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in Korean), *Business Management Review* Vol. 18, Institute of Industrial Management Research of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1985. 1, pp. 317~332.

필자는 70년대 세계 경제의 계속된 불황속에서 개발도상국들이 후발개도국의 밑으로부터의 압력, 선진국의 위로부터의 압력하에서 그들의 수출주도정책이 여전히 주요한 것인지 그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1) 저개발국들은 왜 2차 대전 종전후에야 공업화를 착수했는가하는 역사적 고찰, (2) 공업화 초기에 채택하는 수입대체 무역정책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전망, (3) 수출 주도 정책의 성과가 더 좋게 나타나는 메카니즘의 규명, (4)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출주도경제의 당면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5) 정책적 시사점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다.

1602. 李天雨, “東아시아 主要開發途上國의 開發戰略에 관한 研究”(국문), 논문집 제6권 제1호, 마산대학, 1984. 6, pp. 185~210.

Lee Cheon-Woo, “A Study on Strategies of the Development in the East Asian Deve-

loping Countries”(in Korean), *The Research Bulletin of Masan National University* Vol. 6 No. 1, Masan National University, Masan, Korea, 1984. 6, pp. 185~210.

본 논문은 전후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견어온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동아시아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전략을, 경제발전에 있어 해외 무역 특히 수출의 역할에 역점을 두어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난 20년간의 성장결과를 음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당면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수출추진전략의 장래와 몇가지 경제정책의 시사점을 밝히면서 글을 맺고 있다.

1603. 朱宗桓, “日本の 經濟發展과 그 教訓—한국의 경제개발정책과의 연관하에서—”(국문), 경제연구 제5권 제2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11, pp. 23~24.

Chu Chong-Hwan, “The Lessons of Japanese Economic Development”(in Korean), *The Hanyang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5, No. 2,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1, pp. 23~44.

필자는 전전과 전후의 경제구조의 질적 차이를 분명히 하고 일본 경제성장을 대의수출과 국제 경제 요인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서 일본경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인간중심적 경제정책, (2) 인간 위주의 교육, (3) 경제 개혁의 단행, (4) 국내 시장을 보다 중요시한 점, (5) 외자의존도가 낮은 점, (6) 농공의 균형 발전, (7) 소득 분배의 균등화로 내수시장확대, (8) 공업의 지방 분산책의 성공, (9) 가족주의적인 기업 내 인간관계, (10) 군사비 지출을 억제.

1604. 丁炳然, “獨占禁止政策의 展開와 課題”(국문), 경제논집 제23권 제4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12, pp. 443~474.

Jong Byung-Hyou, “The Development of Antimonopoly Policy and Its Task”(in Korean), *The Korean Economic Journal* Vol. XXIII,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2, pp. 389~418.

이 논문은 1964년부터 시도된 독점금지 정책을 개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우리나라의 독점금지정책이 모색되는 경위를 살펴본 다음 그 제도적 기반인 독점금지 법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의 우리나라 독점금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605. 曹在六, “南北韓 經濟力에 관한 研究”(국문), 지역개발연구 제16권 제1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4. 12, pp. 175~195.

Cho Chae-Youk, “A Comparative Study of Economic Strength between the Two Divided Koreaes” (in Korean), *Journal of the Regional Development* Vol. 16 No. 1,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1984. 12, pp. 175~195.

이 글은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부분에서부터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교류가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호간에 서로 다른 통합이념과 체제는 차치하고 경제적 의미로만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하는 과정의 일단제로서 양국 경제력을 대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술되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남북한 간의 자원구조, 공업생산력, 에너지 생산력, 국민총생산, 무역실적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79년대 이후 양국간의 경제력차가 급속히 심화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개방체제로의 이행을 추진시켜 경제 교류의 가능성이 짙어져감을 보여주었다.

1606. 韓昇殊, “經濟開發과 財政의 役割: 公共貯蓄과 인플레이션 租稅를 中心으로”(국문), 경제논집 제24권 제1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85. 3, pp. 99~120.

Han Seung-So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Public Finance: With Emphasis on the Public Savings and Inflation Tax” (in Korean), *The Korean Economic Journal* Vol. 24,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3, pp. 99~120.

본 연구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부터 제4차 계획에 이르는 20년간, 우리나라의 공공저축과 인플레이션 조세의 크기를 측정하여 이것들이 경제개발에 기여한 몫을 일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부수적이기는 하지만 경제 발전 과정에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세구조가 20년 동안에 소득재분배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1607. 韓仁錫, “經濟發展과 勞動市場”(국문), 논문집 제8집, 牧園大學, 1985. 1, pp. 235~246.
Han In-Suk,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r Market” (in Korean), *Research Articles* Vol. 8, Mokwon Methodist College, Daejeon, Korea, 1985. 1, pp. 235~246.

오늘날 노동시장은 가치관, 규범, 전통적 사회구조, 경제활동 '패턴', 노동력의 풍부여부, 경제적 기술수준과 인구조직등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작곡마다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는 결정적이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 발전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있다.

1608. 洪炳裕, “1970년대 전반기의 韓國製造業의 產業別 費用·價格管理分析”(국문), 한국개발연구 제7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1985. 3, pp. 59~73.

Hong Byung-Yoo, “A Cost-Pricing Analysis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in Early 1970s” (in Korean), *The Korean Development Review* Vol. 7 No. 1, Korean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5. 3, pp. 59~73.

이 글은 한국 제조업의 비용·가격 형태의 일방향성을 시사해 주는 통계적 검증을 시도하고, 이러한 비용과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일방향성의 구체적 관제를 측정함으로써 산업별로 비용의 가격전가도를 도출한 뒤, 산업별 제 특성과의 횡단면적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기업 경영형태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기업의 가격전가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고 나서 실증적 분석을 거쳐 우선 제조업의 산업별 가격전가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다음에는 산업별 특성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기업의 가격 경영형태를 논해 나가고 있다.

6. Political Development 政治發展

1609. 金昶熙, “政治發展理論의 動態의 接近에 關한 考察”(국문), 논문집 제26집, 전북대, 1984. 8, pp. 170~181.

Kim Chang-Hee “A Study on the Dynamic Approach to the Theory of Political Development” (in Korean), *Thesis Collection* Vol. 24, Jeonbuk Nat'l University, Jeonju, Korea, 1984. 8, pp. 170~181.

기존의 정치이론들은 구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하는 사회의 정치 발전을 논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이론들의 불충한 점을 살펴본 후

정치발전을 변동지향적이고 현실분석적인 동태적 입장에서, 그리고 갈등론적 입장에서 고찰하고 있다.

1610. 金學俊, “北韓 政權形成期와 政權初創期의 北韓과 蘇聯의 關係—北韓과 蘇聯의 相對方에 대한 相互認識을 중심으로”(국문), 동아연구 제 5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5. 2, pp. 73~140.

Kim Hak-Joon, “The North Korean-Soviet Russian Relations During the Soviet Occupation of Nor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on the Mutual Perception of the Two Sides (1)” (in Korean), *East Asian Studies* Vol. 5,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of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1985. 2, pp. 73~140.

필자는 정권 형성기와 정권 초창기의 북한에 대한 소련의 압도적이며 배타적인 영향력을 견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이 논문을 통해 당시 북한은 소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 소련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북한·소련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소련의 대북한 정책의 일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

1611. 朴準用, “中·美關係의 變化와 韓半島의 再統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한 中·美의 역할과 이해에 관한 고찰”(영문 및 국문 요약), 사회과학논총 제 3권 제 2호,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4. 12, pp. 85~108.

Park Joon-Yong, “The Changing P.R.C.—U.S. Relations and Korean Reunification: An Examination of the Sino-American Roles and Interests Toward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in English and Korean summary),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3, No. 2, College of Social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1984. 12, pp. 85~108.

It is clear that the Korean Peninsula can not remain uninfluenced by the dramatic change of the U.S.-China relations. Therefore, it seems important to examine how these changes will affect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significant in this context to investigate China's traditional interest in North-Korea, her major alignment shift, and prospect of China's rel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1612. 송정환, “중공의 대한 정책; 최근 경향과 전망”(영문), 동서연구 제 8권 제 2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84. 8, pp. 113~137.

Song Jung-Hwan, “Chinese Policies Toward the Two Koreas: Recent Trends and Prospects”(in English),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4. 8, pp. 113~137.

This paper examines China's relations with the two Koreas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focusing on the period since 1976, the year of Mao Zedong's death. This paper discusses particularly the relevance of the following three hypotheses on the current Chinese policies toward the two Koreas: (1) prevention of the Soviet Union from becoming a dominant power in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the Sino-Soviet conflict (2) avoidance of a resumption of large scale conflict in the Korean peninsula by North Korea and (3) demonstration of flexibility toward South Korea in nonpolitical areas. Finally, an attempt is made to examine crucial conditions conducive to the acceptance by China of a *modus vivendi*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612. 李元撥, “韓國의 政治文化와 政意政治”(국문), 논문집 제 26집, 전북대, 1984. 8, pp. 193~206.

Lee Won-Kyoo,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Party in Korea”(in Korean), *Thesis Collection* Vol. 24, Jeonbuk Nat'l University, Jeonju, Korea, 1984. 8, pp. 182~192.

해방 후 한국사회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을 겪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동이 정치문화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연구는 정치문화, 정당정치의 미숙에 대하여 역사적 고찰을 행한 다음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1613. 李洪九, “지방자치와 정치발전”(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6권 제 4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14, pp. 11~20.

Lee Hong-Koo, “Local Self-Governance and Political Development”(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6 No. 4,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4. 12, pp. 11~20.

지방 자치의 조속한 실시에 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반면 어떤 형태의 자치제도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도 미흡한 형편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의 정치발전에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 민주화로서의 지방자치 둘째, 복지단위로서의 지방자치 셋째, 정치적 개혁으로서 지방자치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1614. 劉哲鍾, “美蘇의 東北亞 防衛戰略과 韓半島 安保에 關한 研究”(국문), 사회과학연구 제12집,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2, pp. 31~55.

Ryu Cheol-Jong, “A Study on the U.S.-Soviet Defense Strategy in Northeast Asia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in Korean), *Social Science Studies* Vol. 12,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Jeonbug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1985. 2, pp. 31~55.

본 논문은 신 냉전체제에 돌입한 미·소의 동북아 방위전략을 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제거라는 문제의식에서 지역적 방법과 문서적 방법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여 비교분석을 통한 한반도의 안보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동북아지역의 정치지리적 특수성을 극명히 밝힌 뒤에 이를 무대로 한 미·소의 동북아 방위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정세 분석결과 북한의 위협이 증대됨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한·미·일의 집단 안보협력 체제의 전망과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있다.

1615. 張達重, “美·中共關係와 韓半島 統一環境”(국문), 동아연구 제 5 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5. 2, pp. 1~22.

Chang Dal-Joong, “Sino-American Relations and Prospects fo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Korean), *East Asian Studies* Vol. 5,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of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1985. 2, pp. 1~22.

이 글은 기존의 국제 정치 관계의 서술이나 우리의 통일 논의가 지나치게 세 열강들의 역할 관계에서 국제 정세나 전략구조를 설명하려는 파워 게임론에 치중해서 국내 정치적 변수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국내정치와 국제 정치의 연계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통일논의를 살펴보고있다. 특히 미국과 중공의 관계가 변모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 과정속에서 통일 논의의 ‘한국화’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었

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1616. 趙淳九, “美國의 第三世界 政策에 關한 연구”(국문), 사회과학연구 제12집,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2, pp. 57~134.

Cho Soon-Goo, “A Study on the U.S. Policies toward the Third World” (in Korean), *Social Science Studies* Vol. 12,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Jeon-bug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1985. 2, pp. 57~134.

필자는 제 3 세계 국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국제 정치현실을 직시하고, 제 3 세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 3 세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제 3 세계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능한 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미국의 제 3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긴밀성을 여러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현황분석을 하고, 정책의 구체적 전개과정을 2차대전 이후부터 역사적으로 밝혀 내어 정책의 특성을 중공·소련 등 여타 강대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검토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1617. 洪榮囊,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政治不安定의 要因에 關한 分析”(국문), 논문집, 제 23집 제 2 호, 경상대학교, 1984. 11, pp. 201~211.

Hong Young-Hwan, “An Analysis of the Factors of the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Korean),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 23, No. 2,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inju, Korea, 1984. 11, pp. 201~211.

본 분석은 개발도상국의 정치 불안정의 요인이 급격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체제적 욕구좌절과 정치적 제도화의 부족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전전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존의 체제적 욕구좌절과 정치적 제도화의 이론을 개관해 본 연후에 개발도상 국가들의 정치 불안정을 상황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정치불안정을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제도능력의 한계에서 구하고 그 해결책을 국민의 자제와 정부의 장기 종합시책에서 찾고 있다.

7.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都市 및 地域開發

1618. 高秉浩, “小單位 地域開發體系와 開發戰略-

새마을 廣域圈中心의 開發接近方法”(국문), 국토계획 제19권 제2호, 국토계획학회, 1984.12 pp.153~172.

Ko Byung-Ho, “A Study on the Development System and Basic Strategies of Micro-regional Development—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ea-Wide Development in Saemaul Movement” (in Korean), *The Journal of Korean Planners Association* Vol. 19 No. 2, Korean Planners Association, Seoul, Korea, 1984. 12, pp.153~172.

70년대 초반이후 추진되어온 새마을운동이 소단위 지역개발에서 점차 새마을 협동권 사업화로 광역화되는 개발정책 변화의 현 시점에서 상기 논문은 소단위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새마을 광역권 개발의 개념과 그 시대적 배경을 개관하고 소단위 지역개발의 체계를 구상하며 나아가서 개발의 구체적 기본방향울 타진해 봄으로써 새마을 광역권의 발전적 변화와 바람직한 소단위 지역개발 체제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필자는 상기한 두 개발 전략이 대치한다기 보다는 상보적인 관계임을 명시하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울 새마을 광역권의 개발전략에 미시적인 소단위 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1619. 具珉想, “地域社會開發과 地方自治의 基礎造成에 對한 理論的 考察”(국문), 논문집 제2집, 한남대학 지역개발대학원, 1985.2, pp.153~184.

Ku Min-Sang, “Theoretical Review of Base Form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Local Self-Governance” (in Korean), *Theses* Vol. 2, Regional Development Graduate of Han-nam College, Daejun, Korea, 1985.2, pp.153~184.

이 글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 성급한 선진제도의 이식이나 적용에 앞서 한국 사회의 전통과 실상을 인식하면서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탐색하는데 그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치의 근본적 토양조성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민주주의식과 자치의식의 개발 방안을 주로 다루면서 전통적·역사적 산물로서 하나의 사회적 공동생활권을 형성한 주민들의 강력한 결사체인 지역사회와 지방행정구역을 지방자치의 구조적·제도적 터전으로 삼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지방자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1620. 金基浩, “美國 都市再開發方法에 關한 考察—‘미니아폴리스’再開發 事例를 중심으로”(국문), 환경논총 제14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84.8, pp.147~163.

Kim Ki-Ho, “An Inquiry into the Urban Redevelopment in America: The Case of Minneapolis” (in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Vol. 14,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4. 8, pp.147~163.

본 논문은 미국의 ‘미니아폴리스’시에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에 걸쳐 30여년간 행해졌던, 4개의 대표적인 도시재개발 프로젝트의 사례를 검토·분석함으로써, 첫째로 도시재개발에 대한 안목과, 두번째로 도시재개발의 개념과, 세번째로 도시재개발을 하는 데는 무엇이 요구되는가에 대해서, 미국의 도시계획 및 정책가가 지닌 생각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재개발 행정의 올바른 안목의 정립을 촉구하고 있다.

1621. 金碩培, “都市無住宅者를 爲한 庶民住宅供給促進方法에 關한 研究”(국문), 牛岩論叢 제1집, 청주대 대학원, 1985.4, pp.91~108.

Kim Suck-Bae, “A Study of the Methods of Housing Supply for Lower Income People in Urban Areas” (in Korean), *U-Am Review* Vol. 1, Cheong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Cheongju, Korea, 1985.4, pp.91~108.

인구의 증가와 산업발전은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초래했고 또한 주택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 논문은 먼저 서민주택의 개념을 살펴보고, 서민주택 공급현황을 분석한 다음 서민주택 공급의 기본방향, 제약조건, 촉진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1622. 金安齊, “都市 및 地域開發과 情報管理體系(1)”(국문), 환경논총 제15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84.12, pp.25~51.

Kim An-Jae, “Information Systems, for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With Special Reference on the Development Planning of the Capital Region” (in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Vol. 15,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2, pp.25~51.

이 연구논문은 서울시와 인천시 및 경기도로 구성되는 수도권을 사례 대상으로 하여 이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실태, 즉 이용대

상의 정보, 자료의 수집 및 처리, 정보관리의 조직 및 운영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보체계의 문제점과 그 요인을 규명하고 도시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정보체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도색하고 있다.

1623. 金英欄, “韓國의 農村開發事業에 대한 住民 參與研究”(국문), 인류학논집 제 8집,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1985. 7, pp. 66~102.

Kim Young-Lan, “A Study of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Rural Development Services in Korea” (in Korean), *Anthropological Study* Vol. 8, The Anthropological Socie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7, pp. 56~102.

본 연구는 농촌발전과 변화의 동인을 주민과 주민에 의한 조직 및 지도력에 두고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농촌개발 사업을 수용·진개하는가를 살펴보고 또 그것이 농촌발전에서 어떠한 효과를 주었으며 그 지역의 사회·경제 구조와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주민참여의 측면에서 밝혀내고 있다.

1624. 金源 “都市政策의 形成過程과 그 展望”(국문), 사회과학 제22집,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8, pp. 63~92.

Kim Won, “Decision-making Process and Its Prospect” (in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Vol. 22,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Sung Kyun Kwan University, Seoul, Korea, 1984. 8, pp. 63~92.

이 논문은 그동안 자기 달리 연구, 분석되어 온 우리나라 도시화의 단계를 일제식민지시대, 자유당권력시대, 경제개발계획시대로 구분해서 정리해보고 각각의 기간동안 우리의 도시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정책의 쟁점이 무엇이었으며 그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다.

- 金利泰, “韓國地方小都邑 經濟開發에 關한 研究”(국문), 논문집 제18집, 서울시립대학, 1985. 2, pp. 135~158.

Kim Lee-Tae, “A Stud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ocal Town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easures for Self-Growth-Momentum” (in Korean), *Theses* Vol. 18, Seoul City University, Seoul, Korea, 1985. 2, pp. 135~158.

본 논문은 지난 20여년간 경제성장의 결과의 하나로 국토공간의 불균형개발에 의한 지역격차가 야기되었음에 주목하고 특히 지방소도읍이

경제개발에 있어 고용, 문화, 사회복지 등의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의 상대적인 소외, 인구의 감소 등으로 성장이 침체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은 현행 국토개발계획, 즉 중·대도시를 성장거점으로 그 파급 효과에 따른 소도읍 개발의 계획으로는 더욱 지역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소도읍의 자력 성장과 그 지역경제적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시장경제와 정부지원의 측면에서 4대 목표와 7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626. 김일철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개발”(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6권 제 4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4. 12, pp. 21~30.

Kim Il-Chul “Local Self-Governance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6, No. 4,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2, pp. 21~30.

이 논문은 지역사회의 개념, 지역사회개발의 목표를 설정하여 진정한 지역사회개발의 조건을 기술하고 있다. 필자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개발에는 자율적 개발이 있고 자율적 개발이 있는데 자율적 개발이란 지방정부의 자치제도의 활성화에 의한 개발이다. 이러한 자율적 개발이야말로 ‘인간적인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1627. 權泰煥, “韓國社會學에 있어서의 都市研究”(국문), 한국사회학 제18집, 한국사회학회, 1984. 10, pp. 3~26.

Kwon Tai-Hwan, “Urban Studies in Korean Sociology” (in Korean),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18,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4. 10, pp. 3~26.

이 논문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회보의 저술소개를 기초로 하여 도시에 관한 기존의 연구업적을 몇가지 기준에 의거해 개괄하고 있다. 먼저 도시에 대한 연구업적을 시기별로 구분한다. 도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 이후를 중심으로 개별 연구들을 소개하고 주제의 방향성 등을 개괄하고 있다. 둘째, 연구들을 주제별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도시연구의 주요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의 배경 및 경향, 문제점을 살피고 있다. 끝으로 필자는 결론에 대신하여 앞으로의 도시연구또는 도시사회학의 방향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628. 朴基永, “지역 중심도시 개발의 이념과 전략”(국문), 논문집 제26집, 전북대, 1984. 8, pp. 182~192.

Park Key-Young,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Central C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n), *Thesis Collection Vol. 24*, Jeonbuk Nat'l University, Jeonju, Korea, 1984. 8, pp. 182~192.

이 연구는 인구분산과 지역간 균형적 발전이라는 국가정책적 수요에 부응, 지역개발과 지역중심도시개발에 관한 제이론을 검토하고 지역중심도시 개발의 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

1629. 朴秀永, 金容雄, “都市 不良住居住民의 限界的 特性”(국문), 국토연구 제 3 권, 국토개발연구원, 1984. 12, pp. 11~33.

Park Soo-Young and Kim Yong-Woong, “Low-income Residents in Korea: Their Marginal Features” (in Korean),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Vol. 3*,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Seoul, Korea, 1984. 12, pp. 11~33.

필자들은 기존의 도시불량 주거지 주민 연구가 빈민촌이론이나 한계성(marginality)이론에 더해서 이들 주민을 사회적 일탈자나 적응 부적격자로 낙인을 찍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책을 정당화시켰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도시불량주거지 주민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막연한 편견이 가져다 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입안 구성을 위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들은 한국의 불량주거지 주민들이 (1) 대부분 농촌지역 출신의 진취적 이동성향을 갖고 있고, (2)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사회경제적 이동 경로가 개방적인 이유로 해서 건전한 가치관과 형태를 가진, 이동성향이 높은 근로 계층으로 판명됨을 보여 주고 있다.

1630. 申允杓·禹榮濟, “地方時代를 위한 地域開發行政 體制에 關한 研究”(국문), 논문집 제 2 집, 한남대학 지역개발대학원, 1985. 2, pp. 17~44.

Shin Yun-Pyo and Woo Young-Che, “A Study on Administration System of Regional Development for Local Age” (in Korean), *Theses Vol. 2*, Regional Development Graduate of Han-nam College, Daejeon, Korea, 1985. 2, pp. 17~44.

본 연구는 전문화, 분권화되고 있는 현 행정

제도에 대한 정비요건과 앞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제도적, 환경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조직활성화를 살피고 아울러 80년대 광역권 새마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갖추어야 할 자주적 경제조직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 지방화 시대의 도시개발과 지역 경제적 확충 등 지역개발 과제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지역 개발행정 체제의 구조적·환경적·형태상의 문제점과 주민참여적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와 주민의 공동참여를 통한 발전 방안을 살피고 있다.

1631. 安清市,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發展過程과 그 特徵”(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6 권 제 4 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12, pp. 43~66.

Ahn Chung-Si, “Evolu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6*, No. 4,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2, pp. 43~66.

이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정치적 배경을 서술하고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별 人口構成과 財政을, 지방자치단위의 조직 및 통치구조상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정립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1632. 李桐弼, “農工地區開發의 長期構想과 效率的인 推進方案”(국문), 농촌경제 제 8 집 제 1 권, 농촌경제연구원, 1985. 3, pp. 59~74.

Lee Dong-Phil, “A Study on Developmental Programme of Rural Industrial Estate” (in Korean), *The Korea Rural Economics Review Vol. 8*, No. 1 Korea Rural Economics Institute, Seoul, Korea, 1985. 3, pp. 59~74.

상기 논문은 60, 7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에서 농·공의 불균형성장이 심화되었고, 70년대 후반의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농촌공업개발 정책도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이나, 기존의 공업입지 정책과 무연한 점등을 들어 비판하면서 국토의 균형개발과 농업구조개선의 차원에서 농공지구의 개발방향과 장기구상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례로 검토하고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농공지구개발정책의 새로운 접근은 단순한 농의소득증대 정책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구분산과 농촌인구 정착을 위한 지역의 균형개

발차원에서 대도시 공업의 지방중소도시 분산과 공업 개발의 지방화를 전제로 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역력히 볼 수 있다.

1633. 李恩淑, “大都市間地域의 都市의 癒着性 研究—서울·인천간 지역을 중심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14집, 상명여자대학, 1984. 8, pp. 433~456.

Lee Eun-Sook, “A Study of Urban Coalescence in Interurban Region: A Case Study of Kyongin Region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Collection of Theses* Vol. 14, Sangmyo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4. 8, pp. 433~456.

이 연구는 대도시사이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도로를 따라 도시화가 진행되어 도시적 유착현상을 일으키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서울—인천간의 철도와 고속도로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서울의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와 인천, 부천, 광명을 포함한 지역이다.

도시적 유착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건물점유지역의 면적, 토지이용, 활동중심지와와의 관계를 맺는 범위, 지가, 산업구조와 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연구문제 가운데에서 교통망의 발달에 따른 접근성 변화, 행정구역의 변화 및 시가지 확장과정, 인구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634. 李在德, “清原郡 農村中心地에 關한 研究—人口와 機能分布를 中心으로—”(국문), 논문집 제15집, 청주사대, 1985. 3, pp. 187~214.

Lee Jae-Duk, “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Service Functions in Rural Service Centers of Chōngwon Area” (in Korean), *Thesis Collection* Vol. 15, Cheongju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1985. 3, pp. 187~214.

이 논문은 청원군을 중심으로 하여 첫째, 농촌지역의 인구분포 및 변화를 농촌중심지를 중심으로 파악하며 둘째, 농촌지역에 나타나는 계기능의 분포를 고찰하고 셋째, 이러한 인구와 기능의 분포를 가져온 요인을 검토하여 농촌중심지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635. 柳佑益, “國土開發에 있어서 農村開發의 意義”(국문 및 독문 요약), 지리학 제30권, 대한지리학회, 1984. 12, pp. 28~40.

Yu Woo-Ik, “Priorität für die Landlichen

Räume; Forderung zur Neuorientierung der Nationalen Raumordnungspolitik” (in Korean with German summary), *Geography* No 30, Korean Geographical Society, Seoul, Korea, 1984. 12, pp. 28~40.

필자는 지역개발 정책에 있어 대도시 위주의 편중된 개발이 진행된 사실을 (1)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주로한 국토개발계획, (2) 불균형 성장 이론을 공간적으로 연역한 지역개발이론인 거점개발론적 인식 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농촌개발이 국토개발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반추할 수 있는 접근방식과 정책적 제안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접근시각을 경제적 접근에서 사회공간적 접근으로, 수동적 잔여 공간에서 능동적 개체로서의 공간개념으로 변경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농촌지역개발을 安定(stability)을 위주로 행해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1636. 鄭得鎭, 鄭址雄, “農村地域社會開發에 있어서의 주민 참여요인”(국문 및 영문요약), 새마을운동 종합연구 제4권 제1호,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 종합연구소, 1984. 12, pp. 39~60.

Cheong Deuk-Jin, Cheong Ji-Woong, “Factors Associated with Korean Villagers' Participation i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NU Saemaul Studies* Vol. 4, No. 1, Institute of Saemaul Undong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2, pp. 39~160.

This study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and villagers' participation, analyzes factors affecting the Korean villagers' participation i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and examines implications of promoting community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velopment.

8. Modernization and Social Change 近代化와 社會變動

1637. 金鍾民, “政治近代化理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국문), 연구논문집 제29집, 효성여자대학교, 1984. 8, pp. 505~534.

Kim Jong-Min “A Critical Review on Recent Political Development Theories” (in Korean), *Research Bulletin* Vol. 29, Hyosung Women's University, Daegu, Korea, 1984. 8, pp. 505~534.

이 논문은 서구에서 나왔던 이왕의 근대화 이

론들 중 대표적인 것 7개를 들어 그것들을 재구성하고 그들 전체에 가로 놓여 있는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 각각의 이론들에 대한 비판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한국정치의 설명을 위하여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1637. 金玄操, “都市化·産業化 過程에 있어서의 勤勞者의 價値觀·態度變化에 관한 研究”(국문), 논문집 제23집 제2호, 경상대학교, 1984. 11, pp. 187~200.

Kim Hyon-Cho, “A Study on Changing Values of Workers in the Process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Korean),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umanities-Social Sciences)* Vol. 23 No.2,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inju, Korea, 1984. 11, pp. 187~200.

상기 연구는 도시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의 우리 사회의 근로자들의 퍼스널리티를 형성했던 가치관과 사회규범 적응력의 변화양상을 통해, 서구의 주요 발전이론가들의 이론들의 타당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우리사회에 유용한 새로운 이론형성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먼저 산업화의 의미 파악과 또 이를 상부 구조화하는 근대화 내지 근대성의 문제를 분석의 중심적 과제로 삼고 이를 밝혀내고 있다.

1642. 최양부, “산업발전과 농업의 딜레마”(국문) 현대사회 제5권 제1호, 현대사회연구소, 1985. 3, pp. 73~83.

Choi Yang-Bu, “Dilemma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Agriculture” (in Korean), *Modern Society* Vol. 5, No. 1, Modern Society Research Center, Seoul, Korea, 1985. 3, pp. 73~83.

이 글은 어떻게 하면 한국 농업이 국민 식품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타산업종사자들의 그것과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산업화와 연관하여 일어나는 농업문제의 딜레마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경제 개발전략의 새로운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1638. 박동환, “신흥공업사회와 발전이론”(국문), 현대사회 제5권 제1호, 현대사회연구소, 1985. 3, pp. 3~19

Park Dong-Hwan, “Newly Industrializing

Societies and Development Theory” (in Korean), *Modern Society* Vol. 5 No. 1, Modern Society Research Center, Seoul, Korea, 1985. 3, pp. 3~19.

현재 국제 질서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 논문은 신흥공업사회를 하나의 정치경제적 현상으로 부각시키고 사회과학의 중요 연구과제로 인정해서 기존연구를 취합하고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신흥공업사회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고 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신흥공업국들의 성장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틀을 정립하고 이의 효율성을 정책과학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1639. 申桓澈, “地方自治團體의 區域과 階層構造에 관한 연구”(국문), 사회과학연구 제12집,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2, pp. 135~147.

Shin Hwan-Chul, “A Study on Area and Tier in Local Government” (in Korean), *Social Science* Vol. 12,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Jeon-bug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1985. 2, pp. 135~147.

본 연구는 한국에 있어서 지방 자치 실태와 이와 관련된 여건, 상황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구역과 계층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는 우선 지방 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에 관한 일반이론을 이론적 접근을 통해 규명해 보고, 한국의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 대두되고 있는 구역과 계층구조상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지방자치의 점진적 확대실시에 대비, 지방자치의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구역과 계층구조의 개선방향을 (1) 지방 자치 단체의 구역의 적정화, (2) 지방 자치단체의 계층구조의 합리적 체계화로 제시하고 있다.

1640. 李楨九, “北韓經濟體制에 관한 小考”(국문), 지역개발연구 제16권 제1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4. 12, pp. 159~174.

Lee Jung-Koo, “A Study on the Economic System of North Korea” (in Korean), *Journal of the Regional Development* Vol. 16, No. 1,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1984. 12, pp. 159~174.

필자는 기존의 북한연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미흡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가능한 한 실증적 분석을 위주로 하고 규범적 분석을 결들여서 북한의 경제체제를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그 특징을 (1) 50년대 후반이후, '利用·制限·改造'의 3단계 전략을 통한 사유재산의 소멸과 그에 따른 생산수단의 국·공유화, (2)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농업생산의 집단화를 바탕으로 한 모든 생산활동과 생산지표의 획일적 중앙통제화, 그리고 (3) 경직적 계획경제에 따른 생산목표의 양적 달성에의 치중과 생산성 저하의 현상으로 요약하고 있다.

1641. 尹堉燮 外, "韓國社會의 變化와 個人的 近代性에 관한 연구"(국문), 사회과학연구 제12집,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2, pp. 291~397.

Yoon Keun-Sub, et al., "A Study on Modernization of Man in Korean Society" (in Korean), *Social Science Studies* Vol. 12,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Jeon-bug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1985. 2, pp. 291~397.

상기 논문은 근대화이론이 한국사회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용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가, 따라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변동과 발전을 예측하는데 근대화 이론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는가 등을 검토하려는 취지하에 도시화·공업화 및 이로 인한 사회변동이 여하히 개인들로 하여금 근대성을 갖도록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근대성의 선행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요인, 도시화, 공업화, 대중매체와 공식조직에의 가입, 기타 인구학적 특성 등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근대성의 형성 요인들을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사회 변동의 설명에 근대화 이론의 적용은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9. Social Welfare

社會福祉

1643. 金尙均, "한국형 복지의 이념과 조건"(국문), 현대사회 제 4권 제 4호, 현대사회연구소, 1984. 12, pp. 100~115.
- Kim Sang-Kyun, "Ideal and Conditions of Korean-type Welfare" (in Korean), *Modern Society* Vol. 4, No. 4, Modern Society Research Center, Seoul, Korea, 1984. 12, pp. 100~115.
- 이 글은 80년대 전반기의 한국 사회복지를 진단하기 위해 정부가 행하고 있는 영세민 보호책, 이환자 대책 그리고 장애인 복지의 3개 부문을 진단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분석도

형으로서 Gilbert와 Specht가 개발한 할당, 급여, 전달, 재정의 4개 차원의 분석틀을 채택하여 살펴본 결과, 장애인 복지의 경우에는 진전의 기쁨이 마련되었지만, 영세민 대책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이환자 대책에서는 사회통합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국민간에 위화감을 상승시켜 놓았음을 밝히고 있다.

1644. 金尙均, "女性을 爲한 社會福祉政策"(국문 및 영문요약), 여성연구 제 2권 제 4호, 한국여성개발원, 1984. 12, pp. 130~147.

Kim Sang-Kyun, "Social Policy for Women's Welfare"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Women's Studies* Vol. 2, No. 3,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4. 12, pp. 133~147.

이 논문은 현대사회에서의 여성복지문제가 그 원인의 심각도, 그리고 그 해결의 난이도와 같은 모든 측면에서 여성개인이나 가족의 통제차원을 훨씬 벗어난 사회전체의 공동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여성복지의 궁극적이고도 주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여성복지정책의 시작단계에서 여성 복지를 사회정책으로 정립시키기 위하여 여성복지관련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어떠한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1645. 金永燮, "高齡化社會에 對備한 老人福祉의 政策方向"(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과학논총 제 3집,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4. 7, pp. 57~72.

Kim Young-Sup, "Public Policy for the Aged in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Studies* Vol. 3, College of Soci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1984. 7, pp. 57~72.

오늘날 한국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인구의 3.9%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의 증가추세로 볼 때 2000년에는 약 6%에 도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증가일로에 있는 고령인구의 비율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이래져진 것이 아니고 임기응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건, 소득안정, 여가활동, 공동체내에서의 건설적 참여 등의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노인의 생활조건과 제반문제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노인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646. 金榮仁, “勤勞生活의 質(QWL) 向上에 관한 연구”(국문), 경영경제 제18집,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85. 1, pp. 41~66.

Kim Young-In, “Improving the Quality of Work Life” (in Korean), *Business Management Review* Vol. 18, Institute of Industrial Management Research of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1985. 1, pp. 41~66.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업도 이제 근로자의 QWL 향상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QWL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기초로 첫째, 생활의 질 및 QWL의 본질은 무엇인가 둘째, 산업화에 따르는 소외의 본질은 무엇인가, 셋째, QWL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넷째, QWL의 향상을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등을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QWL 향상 문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QWL 향상을 통한 노사공존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1647. 安秉永, “福祉國家의 形成·展開·危機”(국문), 사회과학논집 제15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12, pp. 71~96.

Ahn Byung-Young, “Beginning, Development and Crisis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Vol. 15,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2, pp. 71~96.

이 글은 19세기의 마지막 4반세기에서 비롯되어 오늘에 이르는 복지국가의 형성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근년에 들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위기의 본질 및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사회가 겪어온 과정, 앞으로의 정책대안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반적인 과정, 정책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의 제기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필자는 복지국가를 위한 거시적 조망의 정책 기획을 위해서 이러한 논의는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1648. 劉鍾海, “고도산업화 사회와 노인복지”(국문), 현대사회 제 4권 제 4호, 현대사회연구소, 1984. 12, pp. 214~225.

Yu Chong-Hae, “Highly Industrialized Society and the Welfare for the Aged” (in Korean), *Modern Society* Vol. 4 No. 4, Modern Society Research Center, Seoul, Korea, 1984. 12, pp. 214~225.

산업화가 고도화되어 가면서 인구의 노령화,

노인세대의 증가, 핵가족화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변모되면서 노인문제가 개인,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필자는 사회성, 전체성, 주체성, 그리고 현실성의 원리와 노인복지가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이론적 접근을 개관한 연후에 한국의 노인복지를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공적 부조와 사회부조로 나누어 노인복지의 현황을 요약한 후에 노인 주택복지 시설(노인정의 설치 정도)과 수용노인복지 시설(양로원)의 측면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노인복지개선을 주창하고 있다.

1649. 이종훈, 韓國型 福祉의 理念과 模型에 관한 研究—특히 ‘경제복지’를 중심으로—(국문), 중앙대학교 논문집, 중앙대학교, 1984. 10, pp. 61~98.

Lee Chong-Hoon, “A Study on the Theory of Korean Welfare Model: Emphasis on Economic Welfare” (in Korean), *Theses Collection* Vol. 28,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0, pp. 61~98.

상기 논문은 지난 20년간의 경제개발에 뒤이은 산업간·지역간·계층간의 소득격차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긴장구조와 상대적 빈곤감의 해소를 위해 한국형 복지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 방향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이념적으로 설정하고 한국형 복지에 담겨져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를 밝히며 그 복지의 형태와 제도 그리고 복지정책 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형 복지의 이론적인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80년대의 경제개발과 사회 개발의 사상적 좌표를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한국경제의 장기 모순속에서 한국형 복지의 당위성을 찾아 그 규범과 존립기반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1650. 林春植, “中國 社會福祉 現況과 課題”(국문), 논문집 제 2집, 한남대학 지역개발대학원, 1985. 2, pp. 208~218.

Lim Chun-Shik, “Taiwan’s Social Welfare, Present States and Future Tasks” (in Korean), *Theses* Vol. 2, Regional Development Graduate of Han-nam College, Daejun, Korea, 1985. 2, pp. 201~208.

필자는 대만의 사회복지정책이 고래로부터의 親民思想과 유교사상, 그리고 손문의 삼민주의에서 보여지는 민생주의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가능한 한 긍정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그 복지정

책을 인구, 국민주택, 사회보험, 사회구조, 社區發展(community development), 合作事業, 직업훈련, 보건위생, 노동자·농민복지, 아동·부녀자 복지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몇가지 앞으로의 바람직한 시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651. 鄭用德, “配分的 定義와 福祉政策”(국문), 사회과학 제22집,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8, pp. 270~308.

Cheong Yong-Duk, “Distributive Justice and Welfare Policy” (in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Vol. 22,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Sung Kyun Kwan University, Seoul, Korea, 1984. 8, pp. 274~308.

사회복지, 사회개발, 소득분배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기는 하나, 복지 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가치, 특히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재분배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또 재분배정책의 분석이나 개발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기준의 모색은 배분적 정의에 관한 논의에 그 뿌리가 이어지게끔 되어있다. 이 논문은 배분적 정의의 원칙을 검토하고 그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향을 개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652. 池揚振, “빈곤지역 유아원의 종합사회 봉사 센터화 방안”(국문), 중앙대학교논문집, 중앙대학교, 1984. 10, pp. 245~262.

Chi Yang-Chin, “Developing Day Care Centers into Multi-Service Centers” (in Korean), *Theses Collection* Vol. 28,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1984. 10, pp. 245

본 논문은 논의의 영역을 빈곤층 밀집지역에 위치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의 취학전 교육기회를 부여해주고, 그 부모의 경제활동의 참여폭을 넓혀주기 위해 설립된 새마을 유아원의 사회적 기능과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두고 있다. 그래서 우선 구체적으로 빈곤, 빈곤가정 및 빈곤지역의 일반적 특성과 문제점 및 욕구 등을 개관한 연후에 새마을 유아원을 통한 서비스의 형태 및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순차적으로 밝혀 수혜자인 빈곤층의 욕구에 부합되도록 서비스의 기능과 내용을 확대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